

봉사위원

11월 (주관 : 권영준 장로)

구분	안 내	봉 헌
1부	최급화 손혜원	김현욱
2부	김유송 권수교 송분남 김인심	김유송 김남진 박정민 김수범
차량안내	권택성 김상진	
차량운전	김성수 정석진 황영권 권기환 박경구 박요환 구민우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기관

마애수양관 사타자교회 동가튼교회 동소하교회 하얼빈교회
삼차자교회 철령방주교회 돈화교회 YMCA YWCA C.C.C
중국-장경식, 김기웅 태국-신동은 일본-조원철
필리핀-이교성 미얀마-홍길주 마다가스카르-박재일
경안여고 경안성로원 경안신육원 안동교도소 안동경찰서
범양선교회 러시아카프카스신학교 남중국선교위원회
경북새터민선교회 을목교회 원동교회 서미교회 물한동교회

예배모임 안내

주일낮예배	1부	주일오전 9:30	벤	엘
	2부	주일오전 11:30	벤	엘
찬양예배	주일오후 3:00		벤	엘
	수요기도회	11-2월 3-10월	수요오후 7:00 수요오후 7:30	벤 엘
새벽기도회	11-2월	월-토오전 5:30	엘	림
	3-10월	월-토오전 5:00	엘	림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엘	림
유치부	주일오전 11:30		베	들레헴
유년부	주일오전 9:30		엘	림
소년부	주일오전 9:30		사	무엘
중등부	주일오전 10:30		다	윗
고등부	주일오전 10:30		요	셉
청년부	주일오후 1:30		요	셉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박종석 담임목사 박장덕
부목사 이종백 배장열 홍순진 정대진(마애)
교육목사 김영숙 교육전도사 권엘림
원로장로 권영만 박종만 박성수 반두용 권인철 신노균 김덕영 김경환
강세일 안연호 정복수 이교섭 김운한 김기일 조창래
은퇴장로 김봉학 박용래 강신원 장부의 김성대 오태희 안상홍 문상호
정유진 정오경 최태규 황천석 김용언
시무장로 박무주 정동수 손강덕 권영준 김성수 설동한 서정용 정석진
이규훈(마애) 이종기 전석우 김경일 박영복 신상균 임규선 김희동
지휘 박수경
피아노 장은혜 이지혜 남시영 오 르 간 신강희 강근속 임혜광



경북 안동시 미덕당길 380 (옥동)

교회소식

- 환영** *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예배** * 목요 경배와 찬양(이번 주 주제: 교만) : 목요일 저녁 7시 30분, 1층 엘림실
*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시, 1층 엘림실
* 경안여고 학원 선교 보고 : 다음 주일(13일) 오후 찬양예배 시
* 추수감사절 예배(11/20) :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집들이 잔치", 한 분 이상씩 이웃들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은 집들이 잔치 경비로 사용됩니다).
- 모임** * 정기 재직회 : 2부 예배 후, 본당
* 새가족 교육 :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
* 관제전도 훈련 : 매 주일 오후 예배 후, 1층 엘림실
* 순장 모임 : 수요기도회 후, 본당
* 여전도회 총회 : 다음 주일(13일) 2부 예배 후에 합니다.
- 알림** * 2023년도 사역부서(제직부서, 교회학교, 찬양대 등)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결위원회 : 각 부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내용을 13일(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교회 홈페이지 및 사무실).
* 교회수첩에 필요한 사진,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를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여전도회 총회 관계로 식사는 제공 하지 않습니다.
* 교회 청소 : 이번 주는 11월이 담당합니다(본당, 계단, 화장실, 카페 등).
* 시설관리부 광고 : 교회 서편에 선타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장로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 다음 주일(13일) 오후 5시, 본당
* 안동동부교회 은퇴 및 취임, 임직식 : 오늘 오후 3시, 안동동부교회
* 경북도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 : 10일(목) 오후 2~4시, 안동시민회관 대동관, 주최-경북기독교총연합회
- 교인동정** * 별세: 장분성 집사(11.3)
* 축하: 입교, 세례 증서 찾아 가지기 바랍니다(본당 뒤편).
- 새가족**

번호	이름	주소	셀	기관	인도자
64	고우희	옥동 은행나무로	16	8여전	김옥란

■ 건축헌금 계좌 : 농협 707059-51-022680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십일조, 감사헌금 계좌 : 농협 707015-51-044866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지난주 봉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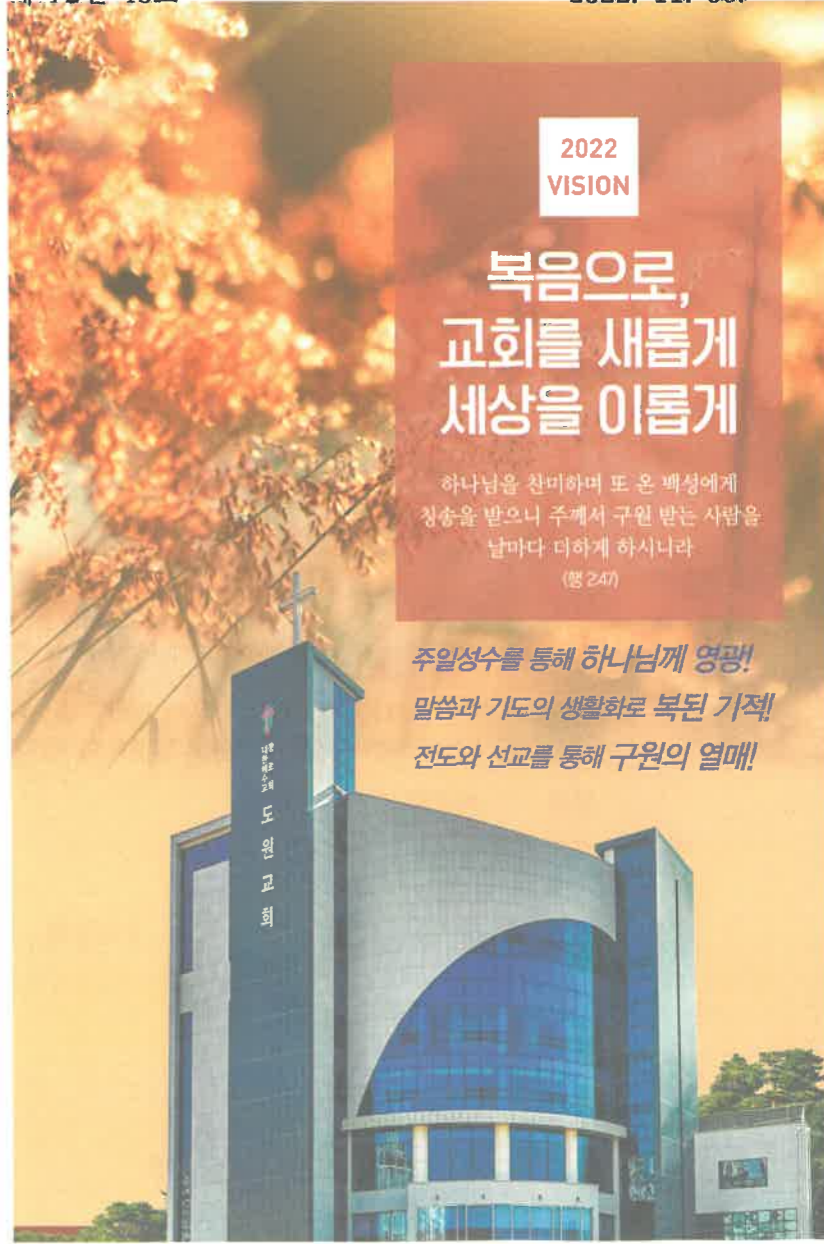
십일조 : 강근속 강순호 강양숙 구민우 권엘림 권요원 권경원 권중규 권한주 김강락 김경환 김말숙 김경선 김명정 김복학 김선서 김성진 김순이 김승열 김영환 김영관 김영환 김운환 김유송 김인심 김정옥 김현옥 김희동 노의영 류기용 마호인 박상물 박윤복 박지우 배장열 배준희 배후남 서상교 설동한 설순우 신노균 신승현 신원순 안상홍 안소영 안연호 오순희 오태희 이 정 이나중 이동복 이동수 이준희 이준기 이진영 이태선 이화자 임규선 임상재 임은진 임태수 장보람 장정순 전태민 정동수 정석진 정영기 정영선 정유진 정재홍 조영순 조경화 최태규 최한나 최환진 하숙재 허정자 홍혜순 무명명

감사 : 강근속 강근순 강순호 강순호 강양숙 공혜용 권기박 권기환 권엘림 권은영 권이숙 권경원 김남진 김명정 김사광 김선화 김윤순 김은환 김재원 김계구 김진희 김희준 남재남 류명희 류명희 민기희 민요한 민정애 박윤복 박지우 배장열 배준희 서상교 석화관 신원순 안연호 안창호 안승기 오동훈 오은자 이길선 이복순 이현실 강분성 장은석 장은영 전영숙 정석진 조미영 최규화 최순남 최태규 현지영 이윤림손혜사경 무명명

생일감사: 권철호 박혜선 최경분 주점봉헌 : 200명 물질봉헌 : 480구

건축 : 강근속 권기박 권정옥 김경일 김인심 김경환 강종도 김희자 김희준 류명희 박분순 박상물 배장열 배후남 손혜원 이은이 정 이경원 정석진 최태규 최한나 최환진 하숙재 허정자 2부여전도회 5부여전도회

DOWON PRESBYTERIAN CHURCH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36663 경북 안동시 미덕당길 380(옥동)
TEL. 054) 852-5041 / 841-7227
www.dowonch.com



주일낮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09:30 인도 : 1부 홍순진 목사
2부 11:30 2부 이종백 목사

-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부름 | 시편130:7 | 인도자
- * 개회송 | 찬양대
- * 예배기도 | 인도자
- * 찬송 | 617장 | 다함께
- * 성서교독 | 55(시편 127편) | 다함께
- *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 413장 | 다함께
- 증보기도 | 1부: 권택성 집사
2부: 정석진 장로
- 응답송 | 찬양대
- 오늘의 말씀 | 열왕기하18:5~12 (구약p. 593) | 인도자
- 찬양 | 1부: 닦기 원하네 | 중등부
2부: 아 하나님의 은혜로 | 할렐루야 찬양대
- 설교 | 보호막 | 박장덕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찬송 | 545장 | 다함께
542장 | 다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 봉헌 및 찬송 | 감사드리세 주께 | 다함께
-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 찬양 |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 다함께
-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후주 | 찬양대

◎ 다음주 기도 : I 부 : 신승훈 집사 II 부 : 이종기 장로



찬양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 150:6)

15:00 인도 : 배장열 목사

- 찬양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배종희 권사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누가복음 13:1~5 | 인도자
- 설교 |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 배장열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찬양 | 다함께
- 축복기도 | 배장열 목사

◎ 다음주 기도 : 김용순 권사

수요기도회

19:00 인도 : 박장덕 목사

-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이인희 집사
- 찬양 | 제4여전도회원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마가복음 7:31~37 | 인도자
- 설교 | 에바다 | 박장덕 목사
-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 박연주 집사 찬양 : 제5여전도회

가정예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찬송	312장	400장	32장	35장	274장	69장
말씀	단3:1-18	단3:19-30	단4:1-18	단4:19-37	단5:1-16	단5:17-31



지난 주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본문 : 마가복음 6:30~31
제목 :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1)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 2)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3)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전9:3), 4)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자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시편 14:2-3). 이 하나님의 진단, 선언 안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억지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죄인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가 있습니까? 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로 벌 받지 않고 살려고 하면, 내가 지은 죄의 삯을 누군가가 대신 감당하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대신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내 죄를 누군가가 대속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 사함을 받는 모든 피의 제사, 그 피의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의 말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취하여 십자가에 달린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로 옮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정없이 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으로 채찍과 찰랑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까이 수용했습니다.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도 않았습다. 불안해 떨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다. 가까이 자원해서 행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9:12).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죄책과 허물에 대한 형벌,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갈1:4).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 본성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 구원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이 구원의 큰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 의롭다하심을 얻습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은 우리 안팎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우리의 삶을 권고하시고,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박장덕 목사(2022. 10. 30. 주일 낮 예배 말씀)